"한지 보고 느끼고 배우고 즐겨요"

'전주한지문화축제' 5월 5~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서 전시 · 포럼 · 이벤트 등 다채롭게 진행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선태)는 5월 5~7일까지 3일 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전주한지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조직위는 '한지로 누리고, 한지와 노닐다'의 제26회 전주한지문화축제의 주제를 확정짓고 공식 포스터 공표와 함께 축제 개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인미애 총감독은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운영하며 포스트코로나 축제의 확장성을 제시한 조직위는 일상회복을 응원하며 한지의 멋과 가치를 즐기는 축제로 기획 시민과 한지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제26회 축제를 완화된 정부 정책에 맞춰 현장중심의 대면 소통 프로그램과 더불어 지난해 만족도가 높았던 비대면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축제는 크게 개막식, 한지마당, 전시, 포럼, 이벤트, 부대행사 등 6개 분야로 준비되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제28회 전국한지공예대전 ▲제2회 어린이 한지미술공모전 ▲한지쇼룸 ▲한지가족소풍 ▲한지코스튬 시민모델 프로젝트 ▲초대작가전 ▲한지응용상품 아이디어 공모 ▲한지 조형물 전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한지문화축제는 5월 5일 어린이날 온라인을 통해 막을 연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은 공예대전 및 미술공모전 시상과 함께 '나는야 한지의상 디자이너' 프로그램의 시민참여 패션쇼로 마무리된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전주한지 가족소풍' 프로그램에 사전 신청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한지놀이 등을 현장에서 진행하는 한지와 함께하는 봄 소풍 기분을 만끽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한지가족소풍 참가자들을 비롯한 사전모집한 시민을 현장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초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개막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 방향에 따라 지난해 실험적으로 도입한 한지를 활용한 각종 공모전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먼저 '전주한지 굿즈 상품 공모전'은 한지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는 공모로 전주한지의 쓰임을 새로이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상품화 할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다.

올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제2회 어린이 전주한지 미술공모전'은 전주한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한지를 배우고 한지 위에 꿈과 감수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다. '한지체험키트공모전'은 한지업체가 참여하는 지역상생형 프로그램으로서 공모로 제작된 체험키트는 축제기간 동안 시민과 함께 누리며 지역업체의 판로 확대와 홍보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새로 마련한 '한지 조형물 전시'는 지역 예술작가들과 연계해 한지로 대형 조형물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조각과 설치미술을 하는 예술작가들이 한지를 활용해 작가들의 조형언어로 만든 조형물을 축제가 열리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 전시한다.

전주한지로 만든 의자, 테이블, 가방까지 우리가 몰랐던, 우리 생활 속 한지의 쓰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한지 쇼룸'도 구축해 한지를 한층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선태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비대면으로도 우리가 한지로 하나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인 만큼, 이번 제26회 전주한지문화축제에서도 시민과 한지인들의 손길을 통해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한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가정의 달 5월은 가족과 함께 한지축제에서 한지를 보고, 느끼고, 배우고,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장은성 기자

춘향제 개막식 피날레 공연 '한복패션쇼'

5월 5일 완월정무대서 남녀노소 시민 · 전문 모델 구성 진행

제92회 춘향제전위원회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될 춘향제 개막식 피날레에서 성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진행되는 한복패션쇼로 관광객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춘향제 개막식이 진행되는 5월 5일 오후 9시 30분 완월정무대에서 진행되는 한복패션쇼는 시니어춘향선발대회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시민모델부터 이몽룡과 성춘향의 첫 만남부터 이별과 재회까지 이야기가 있는 패션쇼로 구성된다.

이번 패션쇼에는 지난 4월 4일부터 17일까지 모집을 통해 지원한 총 52명의 시민 중 사진과 영상으로 진행된 비대면 선정과정을 거쳐 선정된 시민모델 31명과 전문모델 10명 등 총 41명이 모델로 참여한다.

한복 패션쇼에 참여하는 시민모델은 시니어 춘향대회 참가 경험자, 모녀·모자, 부부참가자 등 남녀노소 다양하게 구성되어 이야기가 있는 한복패션쇼를 풍성하게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광연 제전위원장은 "사랑의 도시 남원에서 열리는 특별한 한복패션쇼를 통해 춘향제와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청소년 단편영화제작 교육 진행

무주고 학생 · 영화제작동아리 15명 참여

무주군과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가 무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화제작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은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무주군이 주관하는 주민시네마스쿨 기초교육인 '무주고 단편영화제작교육'에 참여하는 무주고 학생 15명이다.

지난 22일 오전 무주고등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다음달 20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팀을 구성해 단편영화제작과 소재 및 주제 찾기, 영화의 기획안 작성과 관객의 이해, 다양한 촬영기법, 시나리오 기획안, 단편영화 편집실습, 작품 시사회 및 교육 수료식 과정 등을 밟게 된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영화이론과 촬영 및 편집·효과 등 기술을 습득해 나아가 영상 공모전, 영화제 출품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줄 계획이다.

향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단편 영화제작의 기초 과정을 통한 공동연출과 제작에 참여하고 상영회 등을 통한 지역 주민들과의 문화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도 마련하는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과 김정미 과장은 "향후 영화·영상분야 진로를 준비하고 제작 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번 '단편영화제작'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남원의료원, 업무협약

도내 예술인 의료복지 · 예술창작활동 발전 도모 · 사업 발굴 등 협력키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지난 22일 재단 회의실에서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전 대표이사와 박주영 원장이 참석해 전라북도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하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창작 환경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전라북도 예술인 의료복지와 예술창작활동 발전을 도모 ▲교류 협력을 통한 메세나 사업 활성화 및 문화예술 경쟁력 확보 ▲전라북도 문화예술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또한,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써 예술인의 의료복지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협업사업 기획 및 운영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전년도 우리 재단이 전국 광역재단 최초로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는 남원의료원과의 협력으로 전북 예술인의 복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예술인들이 양질의 의료비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영 원장은 "전라북도 예술인들을 위한 의료복지 및 사회공헌을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재단과 힘을 모아 도내 예술인의 건강과 창작활동을 책임질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남원의료원은 1921년 개원, 100주년이 된 전라북도 출연기관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1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2일 재단 회의실에서 남원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예술회관 하반기 수시대관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2022년 전라북도예술회관 하반기 수시대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반기 수시대관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5월 13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5월 2~13일까지 진행된다.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대관 신청서와 계획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수시대관은 지난 정기대관 잔여 전시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7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6개월 간 매주 금요일부터 그다음 주 목요일까지 1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대관 신청할 수 있는 전시실은 총 5개로 기스락1(95평), 기스락2(42평), 차오름1(67평), 차오름2(41평), 미리내(66평)다.

한편, 재단은 상반기에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예술인들에게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위축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주소지(주민등록상)를 둔 작가 및 단체에게 대관 기본료 50%를 감면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공연기획추진단(063-230-7439)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